



당신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십시오!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안젤리카 잠브라노

예수님은 안젤리카라고 하는 에쿠아도르의 소녀에게 23 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 보여 주셨습니다. 안젤리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대부분의 교회가 그의 오심에 준비되지 않았으며, 잃은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멈춘 것과, 어린이들을 사탄에게로 유인하는 오락 산업을 바라보고 우시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적 우상으로 떠받들어진 가수들, 연예인들, 그리고 심지어 교황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젤리카는 또한 천국은 어떻게 모든 준비가 끝났으며, 상상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장소이며, 악이라고는 전혀없는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오직 거룩한 백성만** 데리러 오시는 것이므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날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것이며, 타락하게 될 세상과 함께 남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천국은 모든 준비가 놀랍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ww.DivineRevelations.info/23

장소: 에쿠아도르. 엘 엠팔미, 2009 년 9 월 29 일 오후 7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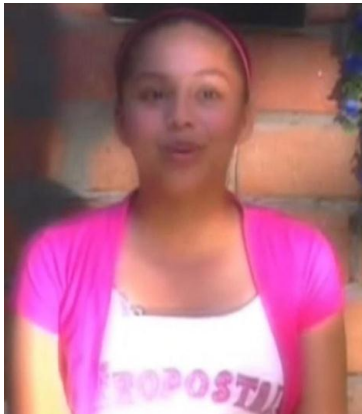
막시마 (어머니): 저의 이름은 막시마 잠브라노이며, **엘 엠팔미**에 있는 "카사 데 오라시온"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5 일 간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저의 딸 안젤리카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 금식 기간 동안 저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하였던



초자연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양회에 가서 금식을 하였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금식이 너무 힘들어 항상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거기 계셔서 우리를 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33:3](#)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딸은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주님께 응답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안젤리카 (딸):



제 이름은 안젤리카 엘리자베스 잠브라노 모라입니다. 18 세이며, 에쿠아도르, 엘 엠팔미의 엘 칸톤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콜레지오 호세 마리아 발레즈코 이바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12 살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나, "내 친구들은 아무도 개신교인이 없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같이 느껴지네" 라고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지독하게 나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기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저의 15 살 되는 생일에 저는 주님 앞에 다시 나왔으나, 여전히 저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야고보 1:8](#)) 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된다, 보기에다 이상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제 삶의 방식이고, 제가 그렇게 원해요! 아무도 제게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어떤 옷을 입지 말라거나,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하고 대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실거야, 그분이 너를 변화시키실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 살 생일 때에 저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4 월 28 일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며 나의 느낌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세요" 라고 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의 일생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의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저의 온 마음으로 울며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것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에 일어난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 월에, 나는 교회에서 하는 15 일 금식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주님, 여기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식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빼 놓고! 주님이 저를 보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나는 “주님,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실거예요?”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혼자 울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왜 제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해 주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도 주시고, 예언도 주셨는데, 저만 빼놓으셨어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표적을 구하였는데, 주님은 제게 [예레미야 33:3](#)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주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하고는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과 보이신 것을 간증하였지만 저는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만 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뜻인데,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이지? “이건 천국과 지옥을 뜻하는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한 저는, “주님, 주님이 보여 주신다면 천국만 보여 주세요, 지옥은 말구요. 거기는 너무 끔찍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을 보여 주세요. 그러나 저를 먼저 바꾸어 주세요. 저는 제 안에 주님의 흔적을 갖고 싶어요, 저는 변화되고 싶어요.”

우리는 금식이 끝났을 때에도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데, 나는 가끔 기절도 하였고,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으며, 그를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성령입니다. 나는, “주님, 주님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며 저의 모든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8 월 한 달 내내 기도를 하였는데, 11 월 즈음에 한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 빕니다.” 나는 “아멘”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실 것 입니다. 주님은 자매가 예레미야 33:3 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섬기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또한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곧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몇 자매들과 나의 가족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 말자, 나는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이 열리고 있으며, 두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물어 보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아름다웠으며,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빛이 났으며, 투명하게도 보이고 금과 같이 번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정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왜 오셨어요?” 하고 내가 묻자,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여야 하는데, 그 일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만 가고 싶어요, 지옥은 말구요.” 라고 하니, 그들은 웃으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낸 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성령님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어디에나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볼 수 있었고, 그때 나는 그가 투명한 것과 빛나는 것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웃으셨으며, 그의 바라보는 눈길은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도 더욱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그들보다 훨씬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음성을 귀로 들었으며, 그 음성은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번개와 같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너와 같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여서, 내가 심지어 어려움에 둘러 싸여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 가기를 힘쓰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때가 많았으나 동시에 그것이 승리의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천사들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중에도 계속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실제로 보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집에 왔던 그 하나님의 종은 내게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미, 준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듣기에 어려운 말도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매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은 정말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나는 아직도 어린데요” 라고 물으니, 그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자매를 다시 보내실 것이며, 자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전부이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멘, 그러면 제가 차에 치이게 되나요? 어떻게 죽게 되나요?”하고 말하였습니다. 나의 머리에는 여러 생각이 지나갔으나, 주님은 내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과, 모든 것이 계획 가운데 통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11 월 6 일, 나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 천사들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고 주님께 찬양하는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룩, 거룩, 거룩, 할렐루야,”라고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지루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는 크나큰 거짓말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 말을 믿었지만 내가 주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복음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볼 수 있었고, 같이 놀았으며,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주님만 찬양하였습니다. 내가 “성령님, 나와 여기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함께 해요” 하고 하면 그는 거기에 계셔 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일어나실 때, 발로 일어나는 것과 심지어 자리를 펴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여도, 그는 여기에 계십니다! 그 관계는 계속되었으며, 한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중지될 이유가 없습니다...내가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전의 삶에서 나를 끄집어 낸 것을 생각하면, 나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모든 자비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합니다!

11 월 7 일,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준비하여라, 오늘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나는 성령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은 성령이신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무시하며, “주님, 나는 오늘 죽기 싫어요!” 하고 말하였으나, 주님은 되풀이 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여라, 오늘 너는 죽을 것이다!**” 이번에는 더 크고 힘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나는 지금 말하는 분이 주님인 줄 알고 있어요; 저는 단지 확인하려고 한 것 뿐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제가 무서워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실제로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가 집에 도착할 때, 제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 와 있게 해 주세요, 그에게도 제가 오늘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며 그에게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아십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여 보니, 그는 이미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막시마:

제 딸이 집에 돌아 왔을 때 우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엔젤리카는 주님의 종을 보고,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주님이 당신을 오늘 오후 4 시에 데려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저의 딸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듣고 놀라,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안젤리카: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그런데 나는 죽기 싫어요! 안 돼요, 주님,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종은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기도 합시다." 나는 "아멘"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순간, 나는 모든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는 것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것을 느끼며, 내게 이 죽음은 일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미소 짓고는 크게 웃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쳐다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내가 우울한 마음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웃고, 뛰며, 노래하였습니다.



막시마:

제 딸은 즉시 마음에 기쁨이 넘쳤으며,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씩 모든 것을 먹으며, "내가 만일 돌아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이제 다 먹고 배가 불러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안젤리카:

모두가 웃기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해?" 나는 대답하였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 있게 될 것 때문이야. 그런데 만일 내가 돌아 오지 않을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에게 다 줄게" 그들은 나를 쳐다 보며 물었습니다. "네 꺼를 우리한테 다 준다구?" 그때 저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쳐다 보았습니다!

막시마:

제 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교회의 자매들은 평상시와 같이, 늘 함께 있었는데, 내 딸은 그들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의도를 물어 보니, “내가 돌아 오면, 친구들이 다 내게 돌려 줄거예요, 그러나 만약 돌아 오지 않으면, 그들이 다 가질 거예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안젤리카:

나는 그렇게 말할 때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기뻐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옷이랑, 침대, 핸드 폰,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으로: 만일 내가 다시 돌아 오면, 내게 다시 돌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막시마:

그녀의 결심은 굳게 섰으나, 저는 엄마로서 너무 큰 슬픔을 느꼈으며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그 순간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불안 하였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나는 집 안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매님, 여기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계속 하세요, 곧 갈게요. 이 일만 마저 하고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안젤리카:

그들은 모두 기도하면서 저를 쳐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주님은 거짓말하거나, 후회하는 분이 아닌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면, 저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이라면 저를 이곳에 다시 보내 주세요. 그러나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준비 시켜 주시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짧은 기도였으며, 주님의 종에게 “제가 방금 한 이 기도는 우리 엄마에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지금은 말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당신을 데려 가신 후에는 말하겠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둥글게 앉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막시마:

오후 3:30 분에 주님은 그의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의 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에 가서 그녀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2 분을 주며 온 몸에 완전히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기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죽 음

안젤리카:

제 엄마와 교회 자매인 파티마 나베레떼는 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기름을 붓는 중에 나는 무엇인가가 나를 덮고 있으며, 유리 같은 것이 나는 두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나는 갑옷과 투구 같은 것으로 덮여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후에, 그들이 나를 만지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막시마:

우리는 엔젤리카를 위해 기도하려고 위에 손을 얹으려고 하렸는데, 그녀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였고, 아무도 저의 딸을 만지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딸의 머리부터 발 끝까지 30 센티미터 (12 인치) 정도에서 손이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늘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 지금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갑자기, 나는 크나큰 기쁨을 느꼈으며, 내 마음에 있던 슬픔은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며, 이제는 기쁨과 행복감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였으며, 제 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젤리카:

기도 중에, 나는 숨이 가빠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배와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피가 정지하는 것을 느꼈으며, 내 몸의 모든 부분에 급격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주님, 제게 힘주세요, 제게 힘 주세요!"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게서 힘이 빠져 나갔습니다. 하늘을 보니, 영적인 세계에서, 육신의 눈으로가 아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둘이나 열이 아닌, 수 백만이 함께 모여 있었으며, 빛은 태양보다 10,000 배나 더 밝았습니다. 나는, "지금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막시마:

그녀가 쓰러 졌을 때 우리는 일으키려고 애를 썼으나,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녀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해요, 내가 힘이 없어요, 엄마, 힘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에 고통이 왔고, 그다음에는 배 쪽으로 내려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생전에 아무도 죽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제 딸의 죽음을 보아야 하였고, 제 딸은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제 딸의 마지막 말 몇 마디와 끝에 끊어진 말을 못알아 들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만져 보았고, 거울을 가져와 입에 대어 보았으나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딸을 안아보니 아직 정상처럼 따뜻하였습니다. 나는 얇은 이불로 딸을 덮었는데, 잠시 후 차가와 지기 시작하며, 점점 더 차가와 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죽은 사람의 것처럼 뺏뺏해 졌으며, 몸은 얼음처럼 차가와져 갔습니다.

안젤리카:

예수님이 내려 오고 계셨으며, 내 몸은 죽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나는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음을 느꼈으며, 죽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몸이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들은 이미 내 방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천사들로 가득하였고, 그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에는 빛이 있었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나의 영과 혼이 나누어 지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으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의 몸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만져보고 싶어서 다시 몸 안으로 들어 가려고 했으나, 그것은 공기를 잡는 것과 같았으며,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은 몸을 통과하여 버렸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 중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도와 주세요!"

막시마: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저의 남편이 집에 도착하여 딸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하는 그 순간에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딸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므로 제 딸은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젤리카:

그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천둥과 같으며, 사랑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의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네게 약속하였던 것을 보여 주려고

여기에 왔느니라. 일어나라, 나는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고 네게 말하는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 주리라." 갑자기 나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내 몸을 쳐다 보며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가고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가 걷기 시작하자 천사들은 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강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것을 바라보자 나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키가 큰 남성다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빛이 그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빛은 너무 강렬하여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머리와 가슴을 가로지른 넓은 금빛 띠를 띤 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금띠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왕중 왕, 주의 주"

그리고 발을 보니, 금으로 빛나는 신을 신고 계셨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의 손을 볼 때 내가 이전에 나의 몸을 만지던 것과는 달리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는데, 주님은 "네게 지옥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너는 돌아가서 지옥이 정말 있다고 말하여라; 지옥은 정말 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말하여라, 나의 영광은 실제로 있으며, 나도 정말 있다. 그는, "딸아 두려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 저는 천국만 가고 싶어요, 지옥은 가기 싫어요, 거기는 너무 무섭다고 들었어요." 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장난으로 알고 있고 지옥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 주려하는 것이다. 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 보다, 멸망하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가 말씀을 하실때 그의 눈물이 옷으로 주루룩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세요?"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딸아, 멸망하는 자들이 더 많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는 가서 진실을 말하고, 너도 여기를 오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

지 옥

그가 말을 하시는 동안 갑자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틈이 갈라져

열렸으며, 저 아래에는 매우 어두운 구멍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둘러 싸여 어떤 바위 같은 데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이곳에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같이 있으니 두려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갈라진 틈으로 우리는 어두운 구덩이로 내려 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려고 애를 썼으나 단지 칠흑같은 어둠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엄청나게 큰 원형과 같은 곳에서 수 백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는 너무 뜨거웠으며, 살갓이 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 “주님, 이게 뭐예요? 여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터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끔찍하고, 구역질나며, 어지러운 냄새가 났으며 나는 주님께 나가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여기에 와서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울며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왜요 주님, 왜요?” 그는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사람들에게 가서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그들은 멸망하고 있으며 영혼을 잃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나라에 들어 올 자는 아주 적다.” 이 말씀을 하시며,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강하게 하였고, 용기를 주었으므로, 나는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터널의 끝에 다다라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 불로 뒤덮은 깊은 무저갱이 보였습니다.

막시마:

시간이 지나도 저의 딸은 아직도 누워 있었습니다. 제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으며, 제가 닦아 내어도 계속 흘러 내렸습니다. 나는 거울을 가지고 와서 딸의 입에 대어 숨을 쉬는지를 보았으나, 숨이 없었고, 우리가 맥박을 만져 보았으나 맥이 잡히지 않았으며, 배에 손을 대어 보았으나,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 무슨 일 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던 주님의 종은, “그녀가 있는 곳은 웃는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안젤리카: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지옥이 있다고, 지옥은 정말 존재한다고 꼭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곳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아직 지옥 안으로 들어 가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벌써 나가자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저갱의 아래로 내려가게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울고 소리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전 가기 싫어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꼭 보아야 한다.”



나는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끔찍한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분주히 달리고 있었으며 손에는 무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왜 저렇게 빠르게 달리며, 손에는 무엇을 나르고 있나요?” 그는, “딸아. 그들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사람들, 특히 나의 백성들을 멸망시킬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인간을 멸망시킬 창이며, 각 귀신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저 창을 가지고 다니며 그들을 멸망시켜 이곳으로 데려 오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멸망시켜 지옥으로 데려 오는 것이다.” 그리도 나서 어떤 귀신들이 신이 나서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을 데려와 이 곳에 던져 넣으려고 지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우셨는데, 너무나 많이 우셨습니다. 그는 항상 우셨으므로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막시마:

저의 딸은 23 시간 동안 죽어 있었으나, 저는 아무 관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 24 시간만 기다리겠습니다. 만일 24 시간 안에 제 딸이 돌아 오지 않으면,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딸을 24 시간이 차기 전에 돌려 보내셨습니다.

안젤리카:

주님은 제게, “이제 내가 보여 줄 것을 볼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불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한 젊은 남자가 있는 한 감방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감방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가 쓰여 있었는데, 거꾸로 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젊은 남자의 이마에는, “666” 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살갓 안으로 내장된 쇠로된 큰 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먹고 있는 벌레들은 그 판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으며, 불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늦었다, 너무 늦었다. 나는 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없이 많이 주었다.”

저는 주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왜 여기 있나요?” 그런데 나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땅에 있을 때,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갑자기 주님에게서 떠나 술과 마약과 잘못된 길을 걸어 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러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나의 “말” 을 거부한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다” (요한 복음 12:48)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우셨습니다.



주님이 우실 때는 우리가 우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고통으로 우셨으며, 소리를 내어 흐느끼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사람들이 있나요, 주님?” 하고 물으니, 주님은. “나는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귀신들을 위하여 이 지옥을 만들었다; (마태 복음 25:14) 그러나 그들의 죄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 나의 나라에 들어 갈 자들보다 여기에 올 자들이 더 많다!” 그는 우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셨으며, 그것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였습니다. “딸아, 나는 사람들이 멸망 받지 않게 하려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하려고 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었다. 내가 사랑과 자비에서 나온 나의 생명을 준 것은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 함이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신음하셨으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주님께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 내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만일 주님을 놓친다면, 나는 여기에 남게 될거야!”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울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딸아,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여기에 제 친척이 있나요?” 하고 물었는데, 그는 나를 다른 감방으로 데려 가셨습니다. 나는 그 감방에 나의 친척이 있다고는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구더기가 얼굴을 막고 귀신들은 그녀의 몸에 창 같은 것으로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를 여기에서 일 분만 나가게 해 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였던 일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경배하고 찬양해라! 여기가 너희 나라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을 앓았던 자들이 받는 벌은 두 배나 더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기회가 없다, 기회는 살아 있을 때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의 증조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할머니가 나를 알지 못하겠지만, 왜 여기 지옥에 있나요?: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녀는 용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여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맞다, 그러나 용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천국의 조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아서...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지금은 용서할 때이며, 특히 나의 백성들, 나의 많은 백성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마음 속에 있는 원한과 미움과 쓴 뿌리를 제거하라고 말하여라. 지금은 용서해야 할 때이다! 만일 그들이 용서하는데 실패하면, 지옥에 간 후에 놀라게 될 것이며 그들의 생명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가 그 곳을 떠나려는데 나의 증조 할머니는 불 속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아악!!”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를 하였으며,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진 지옥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뻗쳐 예수님께 도와 달라고, 거기서 나가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대로 지나 가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과 그들을 보는 것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한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죽지 않고 땅에서 살아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는 아직 회개할 시간이 있다!”

주님은 지옥에는 수 없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주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내가 불타는 다른 곳을 보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인이 불 가운데 싸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보고 있는 불의 화염 속에 싸여 있는 저 여인은 셀레나 Selena 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녀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 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회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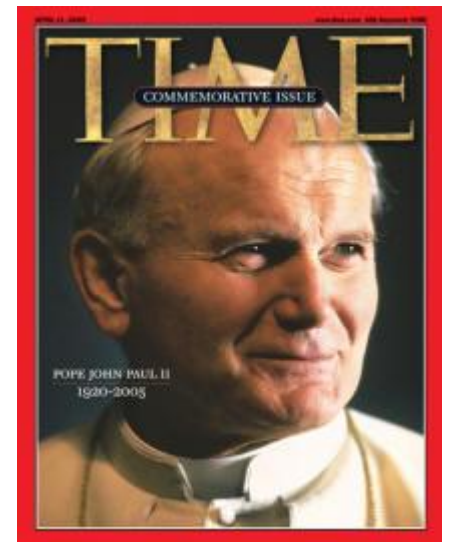


그녀는 나를 보며 말하였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말해 주세요, 제발 말하고 잠잠하지 마세요;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 가서 나의 노래를 듣거나 부르지 말라고 말해 주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마다 나는 더 고통을 당하며 불 속을 걸어야 합니다. 제발 가서 사람들에게 여기에 오지 말라고 말해 주세요; 가서 지옥이 실제로 있는 곳이라고 말해 주세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니 귀신들은 멀리서 창을 그녀의 몸에다 세게 던졌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도와 주세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너무 늦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장소의 주위를 둘러보니, 죽었던 가수들과 연예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것이었으며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제게 설명하였습니다. “딸아, 회개하지 않았으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였든, 자기가 하던 일을 여기서 계속하여야만 한다.”

그곳을 자세히 보니, 많은 귀신들이 비와 같은 것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하여 뛰어 다니며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 마! 도와 주세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귀신들은 더욱 크게 웃으며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해! 여기는 너희들이 영원히 있을 나라야!” 그 불은 더욱 치솟고 사람을 먹는 벌레는 더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으며, 불꽃만 더 일으킬 유황만 있을 뿐이었고, 사람들은 신음하였습니다. 나는, “주님,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는데,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받는 댓가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 가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는 교황 존 폴 2 세 ([John Paul II](#)) 였습니다! 주님은 내게, “잘 보아라, 나의 딸아, 네가 보고 있는 저기에 있는 사람은 교황 존 폴 2 세이다. 그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전에 나는 이중적 마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미사 ([mass](#)) 에 참석한 사람들은, 죽으면 누구나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교황, 존 폴 2 세가 죽었을때,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가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텔레비전의 모든 뉴스와 [Extra](#) 라는 잡지와 곳곳에서, “교황, 존 폴 2 세 죽다. 평화로이 쉬소서. 그는 이제 주님과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하였으며, 나는 그 말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에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지옥의 불가운데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그가 왜 여기에 있나요? 그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딸아, 아무도 간음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탐욕있는 자나, 거짓말한 자는 나의 나라를 상속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답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수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렇다, 그는 많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결코 진리를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진리를 알고 있어도 진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보다 돈을 더 택하였다.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지옥이 진실로 존재한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여기에 있다.”

내가 그를 바라볼 때 바늘이 달린 큰 구렁이가 그의 목을 감고 있었으며, 그는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주님, 제발 저 사람을 도와 주세요!” 교황은 소리 쳤습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서 나가게 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땅으로 다시 돌아 가고 싶습니다. 땅으로 다시 가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 알고 있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네게 다른 기회는 없다.”

주님은 제게, “그의 일생을 네게 보여 주겠다.” 주님은 큰 화면 같은 것을 통해, 교황이 많은 군중에게 여러 번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보여 주셨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음란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아라 딸아, 이 곳에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 우상 숭배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나만 구원자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나는 죄인을 사랑한다, 그러나 죄는 미워한다. 딸아, 너는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들이 내게로 나아와야한다는 것을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 이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보여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장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녀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을 보여 주셨는데, 많은 여자들이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간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으며, 간음하는 자는 천국을 상속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동안 주님은 제게, “네게 보여 주고 있는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그가 살았던 삶과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와 사제들과 지금 살아 있는 교황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딸아,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에게로 돌이킬 때라고 전하여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 어떻게 그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나요?” 그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 주겠다.” 그는 수 많은 사람들이 터널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에서 발 까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등에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아라, 딸아,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등에 지고 있는 짐은 그들의 죄짐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의 짐을 나에게 넘기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쉬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자이다. 사람들에게 가서 내게 나아 오라는 것과, 내가 열린 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말하여라, 가서 이곳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기에 제 사촌이 있어요, 저 젊은 사람이 제 사촌이에요, 주님, 가까이 오는 저 젊은 여자도 저의 사촌입니다. 제 가족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딸아. 그들은 지금 여기로 행진하고 있다, 그러나 네가 가서 그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여라.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선택하였다고 말하여라...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택하였다. 그것은 네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뜻이다. 너는 가서 네게 보여 준 것을 반드시 말하여야 한다. 만일 네가 말을 하지 않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의 피는 네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서 내가 네게 말한 대로 말하면 그가 내 앞에서 판단할 것이며,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네게는 그 책임이 없고 그에게 책임이 있게 되며 네게는 그의 피가 부어 지지 않는다.” (에스겔 3:18)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하였고, 중요하였던 인물들이 수 없이 이곳으로 걸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 [Michael Jackson](#) 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인기와 많은 팬들을 얻기 위하여 사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공연 때 춘 춤은 지옥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추는 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환호를 지를 때, 그들이 사람들의 고통을 가하여 즐길 때 뒤로 미끌어 지는 듯이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마이클 잭슨이 죽은 이후를 보여 주셨을 때, 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문을 당하는 것과 그가 고통으로 소리 지르는 것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또는 그의 팬이면, 제가 경고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그의 거미줄에 묶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함정에 빠트린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딸아, 또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곳으로 걸어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버린 사람들과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그들이 지옥으로 걸어 오고 있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손에서부터 발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검거나 흰색이 아니라, 떨어진 옷과 때가 묻었으며,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게서 떠난 자들을 보아라, 내가 네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재림하지 않는다, 나는 거룩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흠이나 점이 없고, 주름진 것이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을 위해 갈 것이다...가서 첫 믿음의 길로 돌이키라고 말하여라.” 나는 거기에서 나의 삼촌들과 주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걸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그들에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과, 이전의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말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딸아 그들이 이 길로 걸어 오고 있다. 너의 삼촌들과 친척들에게 그들이 이 길로 걷고 있다고 말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진실한 증인이다, 내가 너의 진실한 증인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너를 믿지 않을 때에도 가서 진실을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지 보여 주겠다.”

우리는 사람의 무리가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터널로 갔습니다. 천명이나 이천명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줌의 모래를 집어 던지듯 매초마다 무더기로 빠른 속도로 떨어 졌습니다. 예수님은 슬프게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파멸되는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귀신들은 또한 이곳에서 의논을 한다” 고 말씀하셔서, 내가 “귀신들도 의논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나며, 인간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계획한다. 그들은 매일 비밀회의를 한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한 방이 있는데로 데려 가셨는데 거기서 나무 탁자에 둥글게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귀신들-모든 종류의 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딸아, 저들은 지금 나가서 목사와 가족과 선교사들과 전도자들과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파괴할 계획을 짜고 있다. 이들은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한다. 그들에게는 많은 창들이 있다.”

귀신들은 웃고 떠들며 말하였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파괴하여 이 곳으로 데려 오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여라. 가서 사탄이 끼어들 여지와 문을 열지말라고 말하여라.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베드로 전서 5:18). 그러나 말씀에는 우는 사자 **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자는 유다의 사자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 5:5)!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그들은 특히 목회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파괴하려고 한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들이 목사님들의 가족을 파괴하여고 하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수 천명의 양 무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양은 내가 그들에게 맡겼다. 귀신들은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뒤를 돌아 보게 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한다. 가서 진실을 전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하고, 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고 하여라!”

우리는 그곳을 떠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곳을 보여 주겠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다.” 나는 주님께, “어린이들이 이곳에 있나요? 어린이들이 여기에 왜 있나요? 주님의 말씀에 “어린이들을 내게 나아 오게 하고 막지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 복음 9:14)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도 내게 와야 한다, 그들이 내게 오면 나는 그들을 반길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8 살난 남자 아이가 지옥 불에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여 부셨습니다. 그 소년은, “주님, 제게 자비를 주세요, 여기서 나가게 해 주세요, 여기가 싫어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 소년을 둘러 싸고 있는 귀신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만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비슷하였습니다. 거기에, 드래곤 보이 Z, 벤 10, 포키만 (포켓 몬스터), 도라, 등등. “주님, 이 소년이 왜 여기 있나요?” 예수님은 그 소년의 살았던 삶을 큰 화면을 통하여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 소년이 텔레비전 앞에서 이런 만화 영화를 보는 것으로 그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만화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매일 방영하는 가정을 깨트리는 연인 드라마는 인간을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잘 보아라” 고 하셔서 보니 그 소녀은 반항아가 되어 부모에게 거역하였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데, 그 아이가 밖으로 달아 나며, 물건을 던지며, 물건을 던지며 부모에게 대들고 밖으로 달아 났습니다. 그리고는 차가 그 아이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부터 이 아이는 여기에 있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가서 부모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하여라.” (잠 22:6)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며, 항상 매를 때리라는 것은 아니나,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만은 매로 아이를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15).

주님은 제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만화 영화로 인해 반항함으로 이곳에 온 아이들이 많이 있다.” 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 만화 영화가 왜 그렇게 나쁜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귀신들이 반항과 불순종과, 원망과, 미움을 실어나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일을 하기는 원치 않고, 나쁜 것을 하게 된다. 아이들이 TV 에서 보는 대로 실제 생활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지옥은 있으며 실재이며, 심지어 아이들도 그들이 가야할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아이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나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한 번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선택을 하여야 한다.

천 국

지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할 것이 있지만, 이제 제가 본 천국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을 보여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떠나 터널을 통하여 빛이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어둠이나, 고통이나, 불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우리는 큰 글씨가 금으로 “하늘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진 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들어가거라, 나는 문이며,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는다.” (요한 복음 10:9)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문이 열려져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 7:11-12) 우리는 계속 걸어가서 처음도 끝도 보이지 않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계 19:9). 나는 큰 보좌를 보았으며, 그보다 조금 작은 보좌가 수 천개의 의자 가운데 둘러져 있었습니다. 의자들 사이에는 옷과 면류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네가 보는 면류관들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계 2:1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것을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끝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흰 세마포로 덮여있는 식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접시와 금잔과 과일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식탁 중간에는 아주 큰 그릇이 있었고 저녁에 마실 포도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교회가 오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우리는 한 아름답은 정원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고, 늙은 모습이 아니라 모두 젊었습니다. 거기의 한 젊은 남자는 손에 손수건을 들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저 젊은이는 나의 종 다윗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청년이 지나갔는데, 주님은 제게, “이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그 옆에는 모세이고, 다른 젊은이는 아브라함이다”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기 보이는 여자는 나의 여종 막달라 마리아이며, 그 옆에는 나의 여종 사라이다.”

그리고나서 주님은, “이 사람은 마리아이다, “나는 나 (I Am)”이며 그리스도인 나를 낳은 마리아이다. 그녀는 지금 지상에서 왜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가서 반드시 전하여라. 우상 숭배자들에게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과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나의 나라에 들어 올 수 있다.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줄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섬겨야 할 자는 오직 나라는 것을 말하여라. 마리아나, 성 그레고리 ([St. Gregory](#)), 그리고 그 어떤 성인이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나이다, 나 외에는 -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주님은 이 말을 -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 세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속아 왔습니다. 그것은 성자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며 마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 가기를 원하시며, 회개하고 우상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는 당신과 나와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는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가거든 꼭, 잠잠하지 말아라, 가서 진실을 전하여라 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모든 것을 말하여라."

나는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께 경배드리는지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그들은 너무 예쁜 머리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는데, 주님은, "네가 보는 것은 내가 여인에게 준 베일이다. 가서 여인들에게 내가 준 그 베일을 잘 간수하라고 말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 주겠다." 나는 멀리서 빛이 나고 있는 도시, 금으로 된 도시를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 저게 뭐예요? 저기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천국의 거처이며 천국의 집들이다. 이것은 모두 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다."

우리는 걷기 시작하여 금으로 만든 다리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걸어 오고 있는 동안의 모든 길은 순전한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계 21:21)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빛나는 유리와 같이 찬란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초자연적이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대 저택들을 보았고, 수 천의 천사들이 그것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매우 빨리 지으며, 어떤 천사들은 천천히 짓고, 어떤 천사들은 전혀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왜 어떤 천사는 빨리 짓고, 또 천천히 짓고, 혹은 짓기를 멈추었나요?"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백성들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천사들은 나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일하는 대로 일한다...딸아, 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더 이상 금식하지 않으며, 더 이상 복음을 전하려고 길 거리나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 나의 백성들은 복음을 부끄러워 하고 있다. 가서 나의 백성들에게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네가 보았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천사들은 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의 천사들이다... 딸아, 가서 나의 백성들에게 처음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주님은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주님께 “주님, 저기, 사람들이 노래하는 데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 보셨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 보시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으며, 얼굴의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왜 우시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갔습니다. 하늘의 대 저택들이 있는 사이에는 꽃들이 함께 한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던 노래는 꽃들이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보아라, 꽃들도 찬양을 한다. 그들도 나를 경배한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이전에 하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구나. 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나를 경배하지 않으며, 나를 이전처럼 찾고 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찾으라는 말을 전하여라.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간다-나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찾는 자들, 준비된 자들,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곧 간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가 이제 지상으로 돌아 가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상이요? 지상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주님과 같이 있을래요! 주님이 저를 여기 데려 오셨으니깐, 저는 주님과만 같이 있고 아무데도 가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반드시 돌아가서 나의 영광이 실제임을 증거하고, 내가 보여 준 것과 네가 본 것이 사실임을 말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회개하여 멸망치 않도록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울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발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물어부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상처는 무엇이예요?” 그가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때부터 있었다.”

그는 또한 그의 손에 있는 자국도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왜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 자국은 그 때 이후로 아직 남아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여기서 모두 함께 모일 때 없어질 것이다. 딸아, 내가 너를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너의 가족과 열방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가지 앓으려고 애를 썼으나, 주님은 손가락으로 아래에 있는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가 보는 저 사람들은 너의 친척들이다, 저들이 있는 곳이 네가 돌아 갈 곳이다. 이제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아름다운 수정과 같이 맑은 강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저 강으로 들어가 잠기어라.” 내가 생명강에 잠기기 전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으나, 나온 후에는 기운차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님은 “딸아, 너는 땅으로 돌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네게 모여 줄 것이 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갈 것인지, 휴거의 날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 주겠다.” 우리는 거대한 화면이 있는 곳으로 걸어 갔습니다. 그 화면에는 온 세계가 다 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의 뱃 속에 있는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미친듯이 소리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 저리로 뛰어 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거기에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휴거가 일어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죽이려 하였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그 날에는 죽음이 피하여 갈 것이다. 그 날에는 성령이 더 이상 땅에 없을 것이다.” (계 9:6) 곳곳에서 사고들이 났으나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심한 상처가 나도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리고 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딸아. 이것이 장차 일어 날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뛰어 다니며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들은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슬픈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었다, 회개 할 시간이 지났다.”

주님은 제게, “딸아. 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찾으라고 말하여라, 아직 때가 있을 때에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지기 전에 나를 구하라고 말하여라. (사 55:6) 사람들이 남게 되었을 때에는 너무 늦었다.” 주님은 남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4:16-17 에 기록한 대로 갈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뜻대로 행한 자들만, 거룩한 생활을 한 자들만 가는 것입니다. (마 7:21)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 24:36)

나는 화면에서 사람들이 곳곳을 뛰어 다니는 것을 보았으며, 신문과 뉴스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화면이 닫히자 주님은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들을 위해 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보여 주신 전부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 지상으로 다시 데려다 주셨습니다.

지상으로 돌아 오다

막시마:

저의 딸이 돌아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은 자리에서 기지개를 켜습니다. “으음” 하고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감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딸이 돌아 왔군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곧 딸은 천천히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략 5 시간 정도 후에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창문을 닫아놓았는데, 눈이 아직 약하였기때문에 빛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딸이 보았던 것을 빨리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딸은 너무 약하였고, 말을 조금씩만 하였습니다. 약 2 주후에 딸은 모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귀신들이 딸을 고통을 주려고 왔습니다. 딸은 그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늘진 곳에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딸이 돌아 온 후 3 일 안에 여기에 왔으며, 딸이 말하기 전이었습니다. 딸은 그들에게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너는 입을 다물어야 해! 네가 저 아래에서 본 것은 어떤 것도 말하면 안된다. 만일 네가 말하면 우리는 너를 죽일거야!”

딸은 그 귀신들이 너무나도 흥척하고, 크며, 뚱뚱하게 생겼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척한지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않고 딸 위에서 뛰며 목을 조르려 하였습니다. 딸은 계속하여 꾸짖고 싸웠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꾸짖기 시작하자, 갑자기 엄청난 빛이 나타나 그들은 도망하였습니다! 그 빛은 주님이셨습니다.

저의 딸이 겪은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본적인 메세지인,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십대 청소년들은 마약과 술을 마시며 괜찮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딸이 본 것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많은 연예인들과 춤 추는 사람들, 그리고 교황 존 폴 2 세가 지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은 찾을 때이며, 회개할 때이며, 그분 앞에 자신을 겸손히 할 때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막 13:31) 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가 찰 때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또한 딸에게 한 터널을 보여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옥으로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옥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입술로만 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너무나 임박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는 더 이상 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문에서 지나왔다. 나는 곧 갈 것이다. 나의 재림은 가까웠다. 나의 백성들이 나를 떠나 세상의 것으로 돌아갔다...나의 백성들에게 이전의 행위로 돌이키라고 말하여라."



오늘 날의 교회는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성령의 불 가운데 있었으며, 주님을 구하였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긴급한 말씀

안젤리카가 청중에게 말하고 있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더 이상 성령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때는 더 이상 성령이 지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계 9:6) 그리고 엄청나게 사고가 나서 밀린 혼잡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죽기를 구하나, 죽음이 인간에게서 피해 갈 것이다. 그 때는 죽을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TV 와 신문에서 "수천 수만 명이 사라지다" 라고 쓴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데려 가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었으나, 남게 된 사람들은 길 거리를 다니며 울고 자신을 죽이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을 데리러 곧 갈 것이다. 나의 교회를 데리러 곧 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두 주 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 심히 기쁘다. 내가 네게 맡긴 일을 네는 잘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갈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가고 있으며, 나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라. 나의 백성은 오직 거룩한 자들이다. 오직 거룩한 자들만 나를 볼 것이다!...그리고 잠잠하지 말아라, 계속하여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선포하여라!”

저는 천국에 있을 때 지상으로 오고 싶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천사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쌌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계단으로 내려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계단은 꽃으로 장식된 하얀 계단이었습니다. 나는 내려오는 내내 울며 주님께 사정을 하였습니다. “주님, 제발, 여기서 떠나지 말아 주세요. 저를 주님과 같이 데려 가 주세요!”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딸아, 나라들과 너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반드시 너의 몸으로 들어 가야 한다. 네가 다시 돌아가야, 네가 본 것을 증거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진실한 증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청중과 함께 기도하고 있음)

모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 손을 가슴에 올리고 왼손은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주님께 말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저를 씻어 주세요.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저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 주세요. 지금, 저는 이때까지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기 누구든지 모두 용서합니다. 저의 용서하지 않으려 했던 마음을 버립니다. 성령이 제 안에서 자유로이 흐르는 것을 방해한 모든 걸림돌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젤리카:

제가 증거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며, 농담도 아니며, 꿈도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지옥은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곳임을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곳을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젤리카 - 대담자와 대화:

그 때는 곧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정죄 받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지옥의 터널을 걸어 가고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님을 영접할 날이며, 당신의 구원자가 당신 안으로 들어 오실 날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나의 주님과 유일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생명과 영혼과 저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예수님과 마귀. 당신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은 명백합니다. 당신은 옳은 것을 하고 있는지 잘못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한 생명과 지옥의 불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그의 자비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이 증거를 들으셨습니다. 이 순간을 당신이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할 순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관 주

계 19:9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지더라.

계 21:1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갔음이라.

계 21:8 그러나 두려워 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자들” 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출 20:3-5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무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계 21:21 그 열 두 문은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더라.

계 21:27 무엇이든 속된 것이든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 가리라.

계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 22: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3-15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비디오 다큐멘터리는, “Godfilms” 과 함께 “El Sueño de Dios” 교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비디오에서 영어로 번역 필사 하여준 산드라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증거는 축소 편집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부분의 삽화는 원래의 간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스페인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의 영어 번역을 보기 원하시면 이곳을 누르십시오. [click here](#) 제가 실수한 것이나 교정할 것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obert@brownells.net
QuickLink: www.DivineRevelations.info/23

번역: 이 명주 (myongkyo@daum.net)